

여시재 연구 세미나 (1 차) 결과보고서

각국의 정치지도자 양성 시스템 비교 - 미국, 중국 사례 분석

발제자: 김준석 동국대 교수,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지정토론 :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시 및 장소: 2018. 8. 9.(목) 14:00-16:30 / 재단법인 여시재

발제 요약

본 세미나는 주요 국가의 정치지도자 및 리더 교육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를 통해 김준석 동국대 교수와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 양성 및 선출 제도를 소개하였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미국에 특별한 정치 입문의 방식이 눈에 띄진 않으나, 명망가가 아닌 이상 하위 단위 정부의 선출직으로 시작한다고 소개하였다.. 주요 경로 중 눈에 뜨는 것은 대학생 조직으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 경험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 공화당 대학생 위원회는 특히 유급 조직원(Field Representatives) 후 싱크탱크 연구원, 공화당 당직자, 의원 보좌관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에 꿈이 있는 젊은 청년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널리 알려진 양대 정당 계열의 싱크탱크들의 정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아울러 공화당의 음성적인 정치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인 코크 네트워크(Koch Network)가 소개되었다.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우, 경쟁정당이 없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간부 양성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도간부 선발 임용에 있어서 시진핑 정부 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사상이며, 기본적인 조건인 학력, 지식, 건강 및 그 외의 중요한 조건으로는 정치, 교육, 직무 경험 등이 있다. 미국과는 달리 순차적 단계를 통해 정치간부를 양성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 신진 당선자가 드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육성되는 만큼 정치엘리트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지정토론자인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멘클라투라로 대표되는 러시아 권력 엘리트 양성사업의 임의성과 수공업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엘리트 불신감이 만연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사회의 기초적인 건강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정치엘리트가 육성될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기초역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충원하는 방식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수준까지의 과도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정치엘리트 양성이 어떤 방향과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논의되었다. 전세계적인 젊은 세대의 정치 외면 현상과,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그 방식으로는 대학교 등에서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발제 내용]

발표 1

발표자: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 미국 정치엘리트의 육성방식

미국에 특별한 정치 입문의 방식이 눈에 띄진 않으나, 명망가가 아닌 이상 하위 단위 정부의 선출직으로 시작하며 민주-공화 양대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치입문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정치엘리트가 육성되는 다음 세 가지의 채널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청년 조직으로, 공화당 계열 정치인의 주요한 입문 경로인 공화당 대학생회와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다. 공화당 대학생 위원회는 특히 유급 조직원(Field Representatives) 후 크탱크 연구원, 공화당 당직자, 의원 보좌관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에 꿈이 있는 젊은 청년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싱크탱크를 통한 청년 육성. Heritage Foundation의 Young Leaders Program은 보수적 성향의 청년에 대한 인턴십을 제공하여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진보적 청년층이 정책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공화당의 음성적인 정치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인 코크 네트워크(Koch Network)가 소개되었다. 코크 네트워크는 막대한 재력을 통해 공화당 선거지원 및 싱크탱크와 인재를 양성한 네트워크로, 대중에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화당 정치인이나 정당이 직접 할 수 없는 언론 활동과 네트워킹 등을 전폭 지원하며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시재가 불안정한 정당 대신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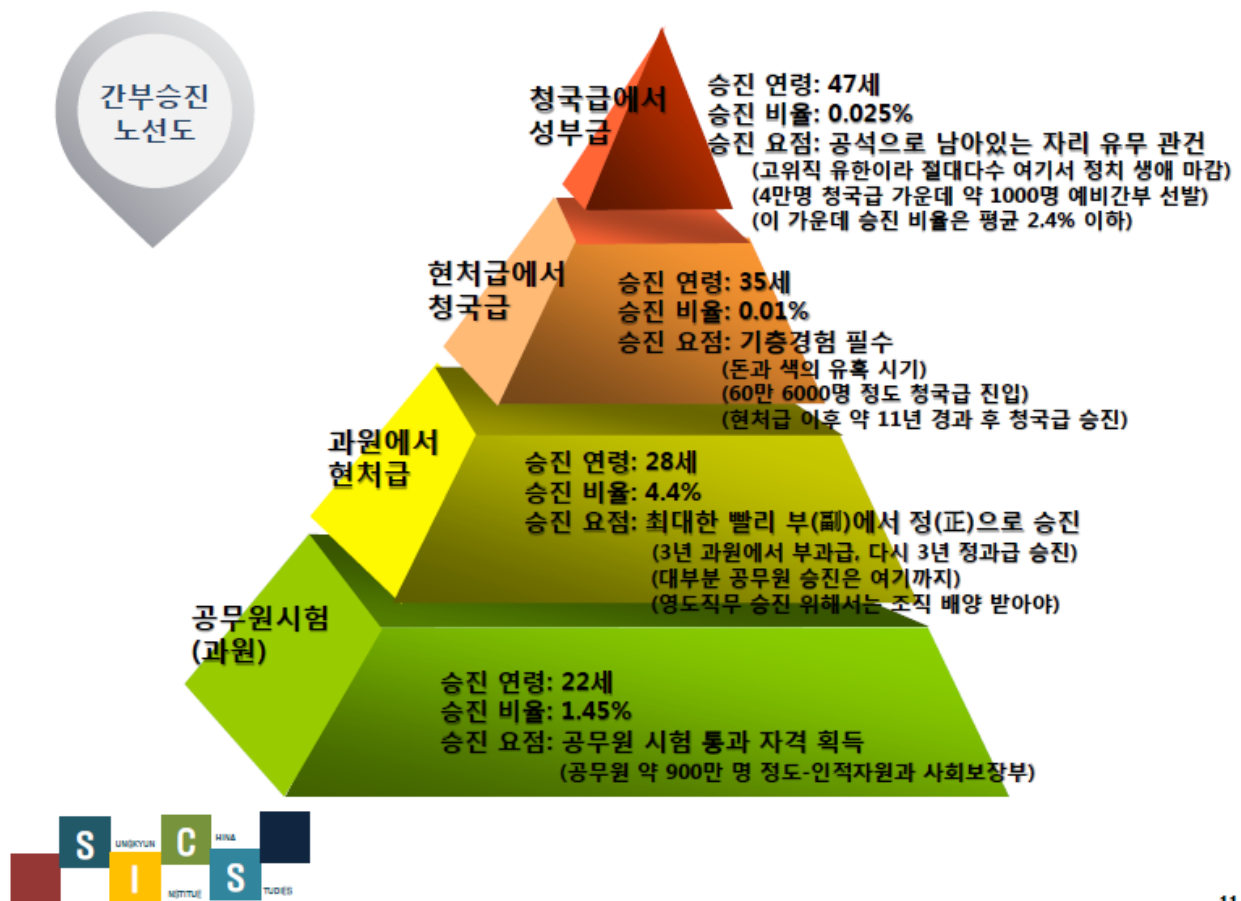
발표 2

발표자: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주제: 중국의 정치지도자 양성과 시사점

경쟁정당이 없는 중국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간부 양성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영도간부 선발 임용에 있어서 시진핑 정부 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사상이며, 기본적인 조건인 학력, 지식, 건강 및 그 외의 중요한 조건으로는 정치, 교육, 직무 경험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은 간부 성장 제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유력 인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간부를 기피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해외교육을 받고 귀국하는 이들에게 고위 공무원 직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미국과는 달리 순차적 단계를 통해 정치간부를 양성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 신진 당선자가 드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육성되는 만큼 정치엘리트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토론자 발언

토론자: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러시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멘클라투라로 대표되는 러시아 권력 엘리트 양성사업의 임의성과 수공업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엘리트 불신감이 만연했다고 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가능성의 나라'라는 비정부자치단체를 통해 젊은 세대에 대한 지지를 확충하고 인재를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체제에 충성스러운 이들만을 엄격히 선발하는 등 여전히 내부체제의 연속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미비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공화당의 Koch Network와 같이 민주당의 음성적 정치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질문: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학생 의회가 선거기간 외에는 느슨하고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고 답했다.
- 중국 간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 효과적인지 질문: 간부 공시제도의 운영을 통해 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외면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 중국 청년들의 간부 기피현상이 사회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 자체적으로 당원 수를 축소하고 있으며, 해외 유능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소수정예를 육성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사회의 기초적인 건강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정치엘리트가 육성될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기초역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충원하는 방식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수준까지의 과도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정치엘리트 양성이 어떤 방향과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논의되었다. 전세계적인 젊은 세대의 정치 외면 현상과,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그 방식으로는 대학교 등에서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